

建築士法 第5條는 改正되어야 한다

朴 永 晚

建築士法에 對하여 改正을 主張함에 있어서 法은 곧 國民의 道德이라는 見地에서 볼때에 그 理致에 맞지 않는 點을 털어 놓는다.

建築士法(以下 法이라 略稱함)은 오로지 建築士만을 保護育成하는 法으로 解釋하는 傾向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建築士를 團束하는 法으로 느끼고 조식하는 터 이므로 第三者의 屐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거니와 法 自體로서의 淸된 意義는

法 第1條에서 明示한바와 같이 “이 法은 建築士의 資格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建築技術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建築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곧 法의 前提의 精神일 것이며 또한 그렇게 團束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建築物의 質的 向上이란 곧 文化向上인 同時에 國民生活의 安全度를 加一層 增大시키는 方法이 될 것이니 말이다. 俗談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취어 주어도 모른다”는 것을 力說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國家建設에 重且大한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를 建築技術을 모르는 사람에게 擔當시켜서 잘될 것으로 믿어야 할지 자못 疑心스럽다.

法 第2條 用語의 定義에서 “이 法에서 「建築士」라 함은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 等の 業務를 行하는 者를 말한다”하였으며

法 第19條에 業務內容을 規定한 것으로 볼지라도 法에서 「業務」라 함은 事務所를 開設한 建築士의 營業行爲를 指摘한 것으로 認定되며

法 第20條에 建築士의 誠實 等 義務를 規定한 點을 綜合하면 어데까지나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려는 精神이 釋然하며 그러한 精神을 實現시키는 方法으로서

法 第3條에서 建築士의 等級을, 法 第4條에

서는 前條에 揭記한 建築士들의 業務擔當의 限界를 正確하게 區別하였으니 곧

第4條 (1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建築物을 新築하는 境遇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1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學校, 病院, 劇場, 映畫館, 演藝場, 觀覽場, 公會堂, 集會場(觀覽席 또는 聽衆席이 없는 것을 除外한다) 또는 百貨店의 用途에 供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
2.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 부록크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 300平方미터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것.
3.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하고 그 層數가 二層 以上인 建築物.
4. (筆者가 主張하는 點과 關聯이 없으므로 揭載하지 않음)

이렇게 規定되었으나

國內實情을 살피 보며는 前記한 用語의 定義에서 밝힌 建築士 以外에도 開業을 하지않은 建築士 및 建築士 資格試驗 應試資格者가 많은 까닭에 이들을 活用하여 보다 빨리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려는 意圖밑에 法 第4條를 緩和하여서 “開業한 建築士가 아닐지라도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限界”를 規定한다는 것이 그만 文章의 未及이랄까, 意思表示의 不徹底랄까, 用語의 定義解釋에서의 混線 등으로 말미아마 事實上으로는 本意에 없는 나쁜 結果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겠으니 即

『第5條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前條 各號에 揭記한 建築物 以外의 建築物로서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을 新築

하는 境遇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前條 第2號에 揭記한 構造의 建築物 또는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이 3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
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建築物에 限한다).
3. 層數가 3層以上인 建築物

이라고 規定하였으니 이것을 뒤집어서 分析하며는 建築技術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것으로

1. 延面積 30平方미터 以內的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크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 9미터 以下의 것.
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 以內的 建築物로서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것.
3. 層數가 2層以下인 建築物

等으로 解釋되는데 이는 중대한 모순 點이다.

다시 말 하거나와 法第1條에서 밝힌 바와같이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이 이 法의 目的”이고 또 法 第20條 (建築士의 誠實 等 義務) 第1項 後段에서 “建築物의 質的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를 거듭 強調한 點으로 미루어 볼 때에 “建築技術을 全然 모르는 사람에게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重任을 擔當시켜서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려는 立法精神은 꿈에도 없었을 것”이라고 確信한다.

다만 法運營의 結果를 여러 갈래로 따져 보지 않고서 建築士, 建築士의 級別, 開業을 하지않은 建築士 및 建築士 資格試驗 應試資格者의 職能을 區別한다는 그 좋은 構想이 建築面積의 大小에 置重한 錯覺과 用語解釋의 混線으로 말미암아 不知中에 “國內에서 80%~90%에 가까운 延面積 100平方미터 以下의 建築物은 質的 向上은 커녕 質的 低下를 가져올 바탕을 마련 하였다”.

이제 그 實際事實을 따져 볼 때에 建築技術을 全然 모르는 白紙素人으로서

1. 延面積 30平方미터 以內的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크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 9미터 以內的의 것.

2. 延面積 100平方미터 以內的의 2層建築物(建築許可를 要하는것).

3. 層數가 2層以下인 建築物
等を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能히 맡아서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高等學校에서 3年동안 建築工學을 배우고 또 7年以上 建築에 關한 實務經驗을 가진 者가 試驗을 거친 2級建築士 即 10年以上 建築技術을 專攻한 사람은 面積 1,000平方미터까지의 單層 建物밖에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지못하는데 反하여 建築技術을 全然 모르는 사람은 延面積 100平方미터 까지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다는 것이 果然 可能한 일이 겠는가?

그래서 法 第5條는 氣魄이 없고 理性을 잃은 文句라고 하더라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等差를 區別함에 있어서는 “建築物의 構造, 使用資材의 質, 用途 等を 標準삼아서 策定함이 事理와 實態에 穩當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建築面積의 大小를 가지고 標準을 삼은 그 自體가 모순을 자아내는 基本이며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는 目的精神에 어긋난 것이다.

法은 곧 國民이 마땅히 알아야 할 보이지않는 길인 까닭에 그 運營의 結果가 當初의 立法精神에 어긋날진데 이는 本意에 없는 惡法이 될 것이고 또한 그 實効를 걸우지 못할진데 一種의 空文書가 되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法은 運營의 妙를 얻을이 果然 得策일진데 이 어찌 그 文字에만 拘碍를 받아 融通性이 없는 見解를 굳이 지킬 바이리오 모름지기 그 참된 立法精神에 立脚해서 國家主義 밑에서 勇敢하게 善處할 것으로 믿는다.

要컨데 “建築士法이 果然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圖謀함에 그 目的이 있다”면 同法 第5條의 盲點을 改正함은 急務中の 急務라고 確信한다.

筆者 本協會 理事